

주간충현

베들레헴 애프리다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예,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계웅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 끝나고, 2012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가 유쾌한(Merry) 이유도, 새해가 기쁜(Happy) 이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피뎌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2011년을 돌아보며 2012년이 기대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벧전 1:3).

2·3면 첫 번째 성찬식

4면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5면

생명의 말씀 6면

믿음의 소망 7면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1~5부예배)
특별찬양예배 및
2011년 제6차 학습세례식
(찬양예배)

이번 주 금요일(30일)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금요찬양집회
소지하고 계신 악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다음 주일
신년감사예배
(2·3부 가족연합예배) 및
2012년 제1차 성찬식
(1~5부예배)

2011년에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위임목사님은 평균 4~5개월 전에 거의 모든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특히 주일설교는 영문으로 작성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5개월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설교할 해당 주일 및 주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는 점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매주일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흔적을 느껴보십시오(요 1:14).

날 짜	본 문	제 목	날 짜	본 문	제 목	날 짜	본 문	제 목
1월 2일	룻 2:14	보이스의 식탁	5월 1일	고전 10:16	성찬식	9월 4일	막 3:17-19	기억하라
1월 9일	빌 3:12-14	뜻대를 향하여	5월 8일	행 11:26	그리스도인 가정	9월 11일	론 3:3-10	니느웨의 회개
1월 16일	시 95:1-8	오라 우리가 경배드리자	5월 15일	요 13:3-17	발을 씻기심	9월 18일	눅 21:25-33	마지막 때에는?
1월 23일	빌 4:18-19	선교사 바울	5월 22일	요 21:1-14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9월 25일	눅 15:25-32	잃어버린 기쁨
1월 30일	요일 5:11-13	영원한 생명	5월 29일	골 1:11	무엇을 보고 있는가?	10월 2일	단 6:1-23	다니엘의 믿음
2월 6일	시 50:1-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월 5일	골 3:17-23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10월 9일	눅 23:33-43	갈보라 언덕 위의 세 사람이
2월 13일	요일 4:7-21	사랑의 증거	6월 12일	행 2:4	오순절의 의미	10월 16일	요 19:30	다 이루었다!
2월 20일	골 3:1-2	부활의 삶	6월 19일	빌 3:7-14	여러분의 헌신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	10월 23일	창 12:1-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2월 27일	시 17:14-15	진정한 만족함	6월 26일	딤후 2:1-5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월 30일	눅 23:39-43	오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월 6일	눅 22:14-20	주의 만찬과 유향절	7월 3일	눅 22:19	이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1월 6일	요 6:30-40	산바냐의 음식
3월 13일	론 12:2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7월 10일	창 5:3-27	공통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11월 13일	빌 2:5-11	여러분의 마음은
3월 20일	갈 2:16-21	의로움과 거룩함의 진리	7월 17일	마 4:1-11	성경과 그 전통	11월 20일	살전 1:1-3	감사의 태도
3월 27일	느 2:17-20	재건	7월 24일	요 21:22	내게 무슨 상관이나?	11월 27일	딤후 3:1-3	죽음이 여러분을 긴장시키는가?
4월 3일	요일 2:1-2	우리의 대언자	7월 31일	고전 12:12-27	같은 지체, 오직 한 몸	12월 4일	눅 5:11-11	깨어짐
4월 10일	요일 3:1-3	신자의 소망	8월 7일	산 7:7-8	300명의 영웅들	12월 11일	사 32:1-4	그리스도에 대한 아시아의 환상
4월 17일	눅 19:28-44	예루살렘을 향하여	8월 14일	눅 23:44-46	확신	12월 18일	슥 3:14-20	하나님의 선언들에 대한 기대
4월 24일	눅 24:34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다	8월 21일	행 27:24-26	어려운 상황에서의 보호하심	12월 25일	미 5:2	베들레헴 작은 마을
			8월 28일	눅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납시다			

THE FIRST COMMUNION

⁽²²⁾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²³⁾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²⁴⁾"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²⁵⁾"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²⁶⁾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Mark 14:22-26)

The first Communion took place in an upper room with Jesus Christ and His disciples around twenty centuries ago. It continued through the early church years and continues today until Christ's return. Our church celebrates Communion seven times a year and today being the first day and first Sunday of the New Year 2012 it seems a fitting time to commemorate this remarkable Christian privilege. The symbols of this celebration are very significant. The bread represents the body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n. 6:35). The cup represents the blood of Christ shed on the cross,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Mk. 14:24). What exactly are we celebrating to start this New Year of 2012?

We are celebrating our free gift of salvation. The Communion message is the gospel,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The gospel offers free salvation for sinners. It's not based on human wealth, beauty, or success.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go to hell without Christ. The most beautiful people in the world go to hell without Christ. The highly successful athletes, scholars, religious officials, business partners, etc, all go to hell without Christ. The gospel declares faith in Christ as the only way to be save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him" (Jn. 3:16,36). God's grace cannot be earned or made free by any human effort,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 2:8-9). Good works cannot bring salvation. Also, Communion does not bring salvation but rather celebrates it. Communion calls us back to the cross, "who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2 Tim. 1:9). Jesus instituted the Lord's Supper at His last supper,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Mk. 14:22). Jesus suffered and sacrificed His body as payment for our sins. Communion is a time for Christians to remember His sacrifice and celebrate

God's grace.

We are celebrating our full forgiveness of sins. When Jesus' time for the cross came, eleven of the disciples that sat with Him at the First Communion turned their back on Him. These faithful men forsook their Lord, "Then everyone deserted him and fled" (Mk. 14:50). Peter denied Christ three times (Lk. 22:34), Thomas doubted His resurrection (Jn. 20:25), and they all ran away from Him. They were all sinners, even after serving Jesus for more than three years! These fearful ones were forgiven. Peter became a major spokesman for the primitive church, and when Thomas met the resurrected Jesus, he cried out, "My Lord and my God!" (Jn. 20:28). These eleven disciples all became the nucleus of the dynamic early church. These fearful ones were completely forgiven. The blood of Jesus cleanses us from sin,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Mk. 14:23-24). Communion is a time for Christians to remember that they can be fully forgiven,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We are celebrating our fantastic future. Jesus told His disciples at the First Communion, "I tell you the truth, I will not drink again of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in the kingdom of God" (Mk. 14:25). Jesus is now in God's kingdom preparing our eternal homes, and He has promised not to drink the fruit of the vine until God's salvation plan is finished,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Jn. 14:3). All Christians will be with Jesus in God's great kingdom we call heaven. Isn't that an amazing future to look forward to? Living with Jesus forever in heaven is the future of God's children. Revelation 19:9 says, "Then the angel said to me, 'Write: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And he added, 'These are the true words of God.'"

My dear friends, have you been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1 Corinthians 11:26 says,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Let's celebrate this first day of 2012 by proclaiming the Lord's death that gives us our free salvation, full forgiveness, and fantastic future. With hearts filled with sincere joy, come now to the Lord's Table. Amen. ■

covenant 연약
commemorate 기념하다
athletes 운동 선수들
scholars 학자들
religious officials (종교의) 성직자들

business partners 동업자들
perish 죽다, 망망하다
boast 뽐내며 자랑하다
deserted him 그를 버렸었다
fled 도망쳤다

instituted 제정했다
payment 지불, 속령
turned their back on Him 그분께 그들의 등을 돌렸다
forsook 자취했다
major spokesman 주요 대변인

primitive church 초대 교회
dynamic 역동적인
cleanses 세척하다, 죄를 씻어주다
purify 정화하다
kingdom 왕국

첫 번째 성찬식

⁽²²⁾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²³⁾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²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²⁵⁾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²⁶⁾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사 찬가로 가니라 (마가복음 14:22-26)

김성관 목사

첫 번째 성찬식은 2000년 전쯤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다락방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의 제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매년 7차례 시행되는 우리 교회의 성찬식 중에 2012년 새해 첫 날이며 동시에 첫 주일인 오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기념하기 알맞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찬 예식이 지닌 상징들은 매우 중요하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4). 그렇다면 201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찬은 거저 받은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한다

우리는 거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복음은 죄인들에게 값없는 구원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의 부유함, 아름다움 또는 성공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최고의 부자들도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도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에 갑니다. 크게 성공한 운동 선수들, 학자들, 종교적 성직자들, 경영인들 등등의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 없이는 지옥에 갑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16,36).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인간이 값없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엢 2:8-9).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은 구원을 기념하는 시간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을 때 주어진 만찬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막 14:22).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 고난을 받으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회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완전한 죄 사함을 기념한다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첫 성찬식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 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막 14:50).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고(눅 22:34),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요 20:25). 그들 모두는 도망쳤습니 다. 예수님을 3년 넘게 섬긴 그들도 모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득하던 사람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요 대변인이 되었으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요 20:28)라고 올부짚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 모두가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하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3-24). 성찬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성찬은 놀라운 미래를 기념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미래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식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막 14:25).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성취되기 전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릴 만한 놀라운 미래가 아닙니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9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창도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26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값없는 구원, 완전한 죄 사함, 그리고 환상적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함으로 2012년 첫 날을 축하합니다. 가슴에 찬된 기쁨을 가득히 안고, 지금 주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

본문개요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에 비유하시며 자신의 희생을 예고하셨다. 이는 자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대속적인 죽임 당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모든 것이 성취된다.

성구설명

◆언약의 피(막 14:24)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피, 곧 새 언약의 성취를 의미한다.
◆잔(막 14:26) / 유월절에는 잔양 시편을 부르거나 연주하였는데, 두 시편(시 113-114)은 사사 전에 나머지 시편(시 115-118)과 사사 후에 제석의 끝 순서로 불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지금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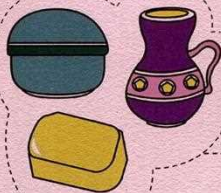
동방박사

- 나처럼 기뻐하고 있어요
-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생일 축하드려요
-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저는 사랑을 드릴게요



예물

- 모두 예수님 거예요
- 동방박사가 준 거예요
- 나도 갖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으로 본
크리스마스

별

- 별이 환하게 반짝거려요
-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천사

- 찬양을 잘하는구나.
- 우리 같이 부르자!
- 천국이 생각나요
-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외치고 있어요



아기 예수

-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예뻐요
-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셔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 예수님 잘 키워주시고
- 예수님 동생 만들어 주세요
-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말구유

- 예수님이 나왔어요
- 예수님 잘 지켜라~ 이라!
- 예수님 감사해요! 꼭 쉬세요



예림



진영



하빈



소현



민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사랑 Christmas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12년 정도 되었는데, 12년 전 크리스마스는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지나갈수록 성탄절 말씀을 미리 듣고, 성탄 찬송을 찬양하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인식뿐이었지만 지금은 그 탄생을 위한 것임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의 크리스마스와는 정말 다른, 가족과 같이 점점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축제를 준비하는 식으로 하나의 행사로 여기며, 그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분주함으로 연말에만 들뜨는 날이 되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제가 만약 주님처럼 태어났다면, 저는 참 서글팠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겠고, 자신의 운명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니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는 순간 '아, 정말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구나. 천사들만 찬양을 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몽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날이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성복(집사, 21교구)



Life 크리스마스

1년 365일 내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독교는 존재 그 자체가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주님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없을 때에는 크리스마스와도, 그저 선물을 주고 받거나 캐롤에 잠시 감상에 젖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록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항상 그 의미를 알아가고, 같은 의미를 두게 되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인희(집사, 22교구)



은혜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만 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둠과, 암울하고, 욕심이 많은 채로 정말 세상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을 지나면서 세 생활은 점차 분주해졌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항상 중학교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남아있으므로 저는 다시 교회로 나아올 수 있었고, 다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죄 값을 다 치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통해 내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양인숙(집사, 24교구)



Everyday 크리스마스

매일 전의 일이다. 아들 아이가 '어머나,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네요'라고 했다. "정말 그렇게"라고 대답한 나는, 곧이어 "그런데, 엄마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왜냐하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매일 내 맘속에 오시거든. 그리고 선물을 넘치도록 매일 주시기 때문이야. 가장 먼저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심으로 선물해 주시니 매일매일이 크리스마сы야!" 옆에 있던 남편이 "정말 이네!" 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표정을 지으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사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0살이 된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 은혜를 60살이 다 되어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 이제껏 일 년에 한 번 12월 25일에만 성탄절이었다. 아끼 예수님으로 오신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탄축하 예배를 드렸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연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 날 그 순간에, 매일 찾아주시고 매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 은혜가 놀라웠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선물을 미리 주신 것에 감사하다.

지금껏 늘 함께 하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만 축하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찾아가 경배 드린 동방박사와 양을 치른 목자들처럼 이 죄인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오심을 늘 깨닫고, 늘 동행하며,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을 증거자의 삶을 살고 싶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오직 한 분만을 자랑하고 싶다. 나에게서는 일 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everyday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다.

문경숙(권사, 16교구)



생명의 말씀

주일찬양예배 2011.12.18

천상의 노래

(요한계시록 5:9~10)

22:1~5). 바로 그곳에서 참 신자들은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이다(계 19:1,6,9).

구속자에 관한 찬송이다 천상의 노래는 구속자에 관한 찬송이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며, 그것을 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5:1~8). 하늘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

구속에 관한 노래이다 천상의 노래는 구속에 관한 노래이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원한 화로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엡 2:1).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힘을 이긴 유일한 능력이다(골 2:13~15). 이와 같은 구속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구속자와 함께 통치하시는 찬송이다 천상의 노래는 구속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찬상에 들어간 성도들의 찬송이다. 이 찬송은 구속자와 함께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계 5:10). 이것은 죄인 된 인간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거저 받은 은총이다(엡 2:8~9). 따라서 천국에서는 오직 겸손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것(고후 5:17)이 되어 영원토록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를 찬송하기 원한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은혜의 선물

복음의 기적, 성육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함, 전고게 함, 즉 굳건하게 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기적인 성육신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삶의 방향의 대부분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곳에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육에 속해 있고,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를 들여다 보면 저의 상태가 정말 이렇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다면 정말 겸손한 열드림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성육신의 사건이 놀랍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입으로는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붙든다고 아니 붙들고 싶다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강력하여 그리스도의 자기부んの 삶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언제든지 누구와 견주고 싶고, 동등함을 취하고 싶고, 나를 비우는 것조차도 견디지 못해하며, 오히려 나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고, 게다가 비우는 데서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낮추는 일은 더더욱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정말 참된 성육신

의 진리의 기적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자기 영광에 대한 기적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사실 저는 주의 성육신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제가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의 은총으로 육신이 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구속의 은혜의 참된 기적이 아니었다면 제겐 참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할 때에 그저 주님의 은총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제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의 기적이 주의 은혜로 굳건하게, 견고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까지 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 안에 참으로 감사함과 기적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은 헤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유종환(전도사, 청년1부)

*12월 4일 주일찬양예배

'크리스마스의 기적'(골 16:25~27)

말씀을 듣고

2011년 주일찬양예배 설교 목록

날짜	본문	주목
1월 2일	빌 4:4-8	긍정적인 삶
1월 9일	골 2:4-32	영성적은 비밀
1월 16일	마 5:16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
1월 23일	수 14:6-14	전쟁의 시작
1월 30일	시 58:15-17	천장을 부를 때
2월 6일	시 49:6-20	자신의 종로
2월 13일	잠 23:29-35	이루고
2월 20일	고전 10:1-11	경고
2월 27일	시 63:1	갈등
3월 6일	요 15:9-10	사랑은 순종하는 것
3월 13일	마 18:15	영재가 죄를 범하거나
3월 20일	갈 3:23-29	율법의 능력
4월 3일	영 9:10-15	이 사람 바울
4월 10일	골 15:1-21	오래와 미라클의 노래
4월 24일	요 13:4-21	십자가와 부활
5월 1일	롬 17:1-7	성수
5월 15일	영 9:38-43	바울의 사역
5월 22일	고후 13:5	자신을 확증하라
5월 29일	눅 14:15-24	큰 잔치의 비유
6월 5일	딤후 4:8	사역을 성취하면서
6월 12일	요 15:26	성령이 임하시면
6월 19일	눅 16:25	사자와 가나
6월 26일	마 27:51-61	십자가 우애
7월 3일	요 19:30	승리의 단어
8월 14일	엡 4:17-32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
8월 21일	고후 5:17-19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8월 28일	요한 4:3-11	하나님의 크신 사랑
9월 11일	고전 9:22	이루고
9월 18일	마 7:15-23	거짓 선지자들
9월 25일	창 3:8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숨었다
10월 2일	창 19:18	참된 영혼을 남기려니
10월 9일	엡 5:1-16	어떻게 살아야 할까?
10월 16일	창 18:36-46	예루살렘이 되지 않자
10월 23일	전 11:1-4	실재하는 농사
10월 30일	온 1:1-4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도리
11월 6일	마 13:1-8	좋은 농사
11월 13일	마 21:28-32	두 아들
11월 27일	골 8:31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12월 4일	골 16:25-27	크리스마스의 기적
12월 11일	히 12:26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12월 18일	계 5:9-10	천상의 노래
12월 25일	마 2:7-20	구원, 천사, 메시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12월 30일(금) ~ 1월 7일(목)	22교구 4팀	김종나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원교회와 한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3090	이예진	대학부	6	
3091	이유리	대학부	17	이정연
3092	이성원	대학부	6	이정연
3093	김경서	대학부	6	이미경
3094	조지원	대학부	17	
3095	조영수		11	조은비
3096	임윤선	대학부	2	조혜원
3097	임정미	대학부	21	이미경
3098	신숙희	대학부	18	김현정
3099	김영아	대학부	22	박민정
3100	정지현	대학부	6	황기훈
3101	정지현	대학부	5	서예민
3102	김동욱	중등부	23	이예민
3103	김동욱	중등부	7	안태원
3104	이재식	중등부	11	신원민
3105	오승은	중등부	5	김하나
3106	김수정	중등부	5	이윤미
3107	유정혜	대학부	2	김지현
3108	정재민	중등부	9	송준희
3109	김지영	대학부	7	김지현
3110	한미리	대학부	3	김지현
3111	양지아	초등2부	13	정혜원
3112	전현경	고등부	11	조아라
3113	한지선	고등부	4	김준서
3114	김태호	중등부	21	김현정
3115	김병남	초등1부	2	송준희
3116	최희준	대학부	4	서예민
3117	이아영	대학부	11	이예민
3118	이한식	대학부	14	이정연

주일영어교실 중등반

모임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 중학생들로 구성된 주일영어교실로 주일 오후 1시와 2시에 2개 반이 개설되어 있다. 영어 주기도문, 영어 찬양, 주간총련 영문 설교(2편)를 교재로 하여 공부하고 있다. 주간총련 2면에는 설교 말씀이 영어로 자세하게 실려 있어, 더 명확하게 말씀을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영 선생님



영어교실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 한글로만 보다가 '영어'라는 다른 언어로 같은 말씀을 대하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신선하게 다가온다. 가르치고자 왔으나 오히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차혜영 선생님
-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유익함이 있다. 배한주 선생님
-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고, 또한 영어 공부와 더불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하다. 공석규 학생
- 모르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고 좋다. 홍민우 학생

주일영어교실은

초등1,2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등부 포함) 주일 1시, 2시에
수준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매주일 복음의 말씀을
영어로 배울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제1교육관 604호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2011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속에서 군 전역을 하게 되었고, 전역 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의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며 교회에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기로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오히려 군에 있을 때보다도 말씀과 동행어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삶 속에서 실재가 되던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과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평일에 살아갈 때에 말씀과 멀어지게 되자 여러 관계들과 상황을 하나하나가 모두 건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지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육고 몸이 고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금요찬양집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고, 토요 대학부집회에도 소망함이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억지로 가서 말씀을 듣고, 주일만 겨우겨우 지키게 되는 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삶 속에서의 힘들음을 핑계로 말씀과 조금씩 멀어지고 나서부터는 자그마한 부분 정도는 내 힘으로 견디려다 실패하였고, 급속도로 주님과 멀어지게 된 제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 '이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도저히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요?'라며 이것저것 갖은 핑계를 붙여가며 피하려고만 하는 제 자신을 보며 전역 후 주님께 약속했던 다짐과 열심과 노력과 의지가 모두 나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을 간구하였고,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어서 항상 주님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고백하며 주의 일을 섬기려 합니다. 저의 계획과 저의 상황들을 보며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들만을 골라서 하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역이 아닌 먼저 말씀 속에서 혼들리지 않게 굳건히 바로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201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도 상황과 사람만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저이고, 상황을 볼 때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타인을 볼 때에는 비판과 정죄를 하는 저이지만 올해 초 말씀 속에서 살아갔던, 아니 그 이전 것들보다 더 감사한 은혜들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음 한 해, 바로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박지민(대학부)

화요일 새벽마다, 선교관 5층 회의실이 밝은 이유?



매주 화요일 새벽, 새벽기도회를 마친 몇몇의 젊은들이 선교관 5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왜 그들은 그곳으로 향하는 걸까요? 그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한 주간 취합된 교회의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간위원장회의'로 모인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온 사모님들은 새벽기도회에 이어 본당에서 기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교회의 일이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와! 새벽을 깨우는 장로님들이 계시니 든든하시죠?



회의 중인 위원장들

Copyright © 2011 충청교회 Published by Cheonghyun Church Press